

## 쉽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 Education for Leisure and Excellence: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유재봉 (Jae-Bong Y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chool education where the pursuit of both leisure and excellence in a fatigue society is possible. To this end, I deal with the following three issues: describing the fatigue phenomena that are widely dispersed in the school; criticising the problems of school education in terms of academic excellence; and suggesting alternative idea which is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of school education including the insufficiency of restless and distorted conception of excellence and responding some possible objections. It seems that school education fails to taking a sufficient rest and pursuing academic excellence in a real sense. I show that the pursuit of leisure and excellence is compatible and possible through reinterpreting the conception of leisure in the light of the Greek conception of leisure(σχολη).

**Key Words** : leisure, sabbath, excellence, fatigue society, neo-liberalism

이 논문은 제 13회 기독교학고교육연구소 학술대회(2018. 11. 24)에서 발표한  
‘쉽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수정·보완한 것임.

---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yoojb@skku.edu  
2019년 08월 03일 접수, 08월 27일 최종수정, 09월 06일 게재확정

## 1. 서론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피로사회’라고 할 수 있다(한병철, 201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을 통해 성과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피로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도한 일과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심리적 건강의 상실은 물론이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올바른 관계마저 파괴되고 있다. 별다른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과 그들의 노동성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로사회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는 학교에서조차 엄청난 학업과 입시의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여러 부적응 행동을 보이거나 육체적·정신적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야 할 시기에 공부와 성적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한국의 학생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추억을 쌓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보다는 자신의 공부에 바빠 친구와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구를 서로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료들 배려하거나 도우기보다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에 이기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피로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호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되고 강화된다.

피로사회의 여러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쉽을 위한 교육’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쉽을 위한 교육’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학생들이 그토록 몸을 혹사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일시적인 달콤한 쉽을 누리기보다는 탁월성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이러한 반문에는 ‘쉽을 위한 교육’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타당한가? 모든 인간이 바라는 쉽고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가?

교육에서 쉽고 탁월성의 추구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쉽 혹은 여가에 관한 연구, 탁월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탁월성과 평등성을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는 있으나, 쉽고 탁월성을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가 개념 전반을 잘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승호(2015)가 있으며, 기독교 관점에서 쉽고 탁월성을 관련하여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각각에 대해 유익한 연구로는 탁월성과 관련하여 강영택(2008), 여가와 관련하여 유재봉(2004), 김정명(2011) 등이 있다.

이 글은 지적 수월성 추구라는 명목 하에 공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쉽고 탁월성을 누리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피로사회의 현상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한국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탁월성의 성격과 문제점을 드러내며, 마지막으로 피로사회와 탁월성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쉽고 안식을 위한 교육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반론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 II. 피로사회에서의 학교교육

### 1. 신자유주의와 피로사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부터 누구나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창 3:17).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경향을 가속화함으로써, 오늘날 사회는 이른바 ‘피로사회’가 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관점에서 경쟁을 통한 성취와 성과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속도와 성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특정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계층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하위계층은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고역하고 있으며, 상위계층은 상위계층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다가 결국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삶이 지속되면 인간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게 되고,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진현상이 일어나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져 자정능력을 상실한 신경증적 피로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병철(2012)에 따르면, ‘피로사회’는 오로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동이 지배하고 성과를 위한 속도의 전쟁이 이루어져 사색적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이다. 이러한 피로사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주광순, 2017: 195-203 참조).

첫째, 이질성의 소멸이다. 상호 대립적인 면역학적 사회에서는 자기와 타자 사이에 상호조건이 존재하였으나, 면역체계가 사라진 피로사회에서는 이질성과 부정성이 제거되고 동질성과 긍정성이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정성의 투쟁은 약화되거나 없어지지만,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또 다른 병리현상인 피로와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다.

둘째, 긍정성의 과잉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규율이나 통제 같은 부정성 대신에, 적극적인 동기와 무한한 긍정을 통한 성과를 강조한다. 긍정성의 과잉은 “자극, 정보, 충동의 과잉으로 표출”되며, 이러한 양상은 ‘멀티태스킹’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주의관리 기법을 강요한다. 멀티태스킹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산하고 가속화”하게 된다(한병철, 2012: 30-32).

셋째, 성과와 효율성의 강요이다. 이 사회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생산을 최대화 혹은 극대화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내도록 노동을 강요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자기착취’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타인에 의한 착취보다는 자기착취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게 된다(한병철, 2012: 103).

넷째, 자유의 개입과 권력의 작용이다. 성과의 강요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주체가 무엇을 하는데 외적인 규제와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Berlin, 1969). 피로사회에서는 타자가 규율을 강제하지 않지만, 자신에 의한 강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유를 예속으로 바꾸는 것은 권력의 작용이다. 폭력이나 강제와 달리, 이 권력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특징을 지니며,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추구하게 된다.

요컨대, 피로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과사회이다. 성과사회는 무한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진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는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병리적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쉽이 없는 전형적인 피로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의 직장인은 대부분 ‘일하는 기계’, ‘돈버는 기계’, ‘일 중독자’라고 불릴 만큼 일에 치여 산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나치게 근면하여 남들이 일할 때뿐만 아니라 남들이 쉴 때도 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편이다. 2018년 기준 근로자의 연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05시간으로 멕시코 2,148시간, 코스타리카 2,121시간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독일 1,363시간, 덴마크 1,392시간, 노르웨이 1,416시간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한국 사회는 또한 바쁜 사회이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회이다. ‘빨리 빨리!’,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외치거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빨리 처리해야 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자신의 삶을 성찰할 겨를을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 2. 학교에서의 피로사회 증상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피로사회의 증상은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특히 시험기간에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다. 학생들은 명문대학이나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친구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수지맞는 투자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에게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다. 그러한 노력과 고통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체면에 의해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낮은 학업성취 결과는 사회구조나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쁨 때문에 즐기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노동하듯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상을 나의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아마 다

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걸음으로 등교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마치 낚아 채이듯 학원에 간다. 학교 후에 학생들은 몇 개의 학원을 이리저리 전전하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새벽녘에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몇 시간 쪽잠을 자고 힘겹게 일어나 또 학교에 가는 일상이 되풀이 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하려고 애써 보지만, 이내 눈의 초점을 잃고 멍하게 앉아 있거나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몇 과목의 수업 외에는 공부를 포기한 채 아예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도 있다. 교사는 자는 학생을 애써 깨우거나 수업에 집중하도록 훈계하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 못 본채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2014년 기준 고등학교는 8시간 28분, 중학생은 7시간 16분이며, 주당 60시간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OECD 평균보다 약 두 배가 많은 최상위 수준이다. 그런데 교육 효율성은 학습시간 1분당 1.37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sup>1)</sup>. PISA 2012 그리고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 자료 분석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학습시간은 142시간으로 OECD국가들 중 가장 길지만, 언어수리 능력은 중간 수준에 머물러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RIVET Issue Brief 제98호, 2016.04.30.).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쉴 새 없이 공부하지만,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 효율성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학교는 사회에 못지않은 피로사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는 본래 먹고 사는 문제 등과 같은 화급한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며 별도의 공간이었다(Oakeshott, 1972).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학교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 전쟁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 온 학교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치움으로써 사회의 전쟁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보다 더 심한 입시 전쟁을 치루고 있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사회 전체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고도 정작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비애는 비유컨대 ‘시시포

1) PISA 2012 15세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그 결과는 유사하다. 청소년의 주당 학습시간은 평균 7시간 6분으로 2위이고, 수학학습 효율성은 OECD34개국 중 34위이다(KRIVET Issue Brief 제116호, 2017.1.30.).

스'(sisyphos)의 처지와 유사하다. 시시포스는 신에게서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산마루로 끌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쉼 사이 없이 바위를 산 정상으로 올리려고 애쓰지만, 산 정상에 닿기가 무섭게 바위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굴러 떨어진 다. 마치 시시포스처럼,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쇠사슬이 얽매어 그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지만, 그 일로부터 어떠한 결실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쉽 없이 수고하며 공부하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지적 수월성 혹은 탁월성을 위해서이며, 그 결과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드러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그리고 우정을 깨트려가면서 경쟁적으로 공부한 결과 지적 탁월성을 획득하는데 성공적이었는가? 한국의 학교는 왜 그토록 많은 공부를 시키고도 지적 탁월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는가?

### III. 한국에서의 탁월성 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한창 뛰어 다니면서 즐겁게 놀아야 할 아이들이 쉬을 잃고 피로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지적 탁월성의 추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적 탁월성 여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느라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쉬을 누릴 겨를이 없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지적 탁월성은 무엇이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 탁월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탁월성은 '수월성'이라는 말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in Excellence(NCEE)의 "A Nation at Risk" 보고서에서, 학교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excell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탁월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극복하여 최고 수준의 자기 능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탁월성 혹은 수월성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탁월성은 엄밀히 말하면 지적 수월성, 보다 구체

적으로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에 가깝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 탁월성 개념의 용법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탁월성의 개념은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지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수단적 목적, 즉 내신 성적이나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선호하는 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지적 탁월성의 개념은 현상적 혹은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적 탁월성은 다중적인 능력<sup>2)</sup>보다는 학업 성적 혹은 성취의 우수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적 탁월성의 개념은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수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지적 탁월성은 절대적 준거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보다는 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얼마나 더 우수한지를 구분하는 상대적 위치에 관심이 있다.

넷째, 지적 탁월성의 개념은 계급적 혹은 이념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지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은 종종 ‘엘리트 혹은 소수를 위한 교육’과 동일시되고, ‘평등성 혹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은 또한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제고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명문 학교나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따라서 이들 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률도 치열하다. 각 학교마다 표방하는 교육목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학교의 실질적 목표는 명문 학교나 대학의 진학에 두고 있다. 명문 대학의 진학은 학업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학교와 학생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한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쉽과 안식이 사실상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일과 쉽 혹은 여가를 가지는 일은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그 둘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의 학교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을 획득하고 있는

---

2) Gardner(2004)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musical intelligence,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linguistic intelligence, spati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등으로 다양하며 다중적이다. 그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피카소, 모차르트, 루터 킹 목사 등은 모두 동일한 지적 탁월성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탁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가?’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쉽과 탁월성은 양립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고,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겠다.

‘탁월성’(excellence)은 본래 희랍어 아레테(*ἀρετή, arete*)의 번역어로서, 수월성, 빼어난, 훌륭함, ‘덕’(virtue) 등으로도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아레테는 인간이나 사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ergon*) 혹은 임무를 가장 훌륭하고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끼의 아레테는 도끼의 고유한 본질인 나무를 잘 쪼개는 데 있다. 인간의 아레테는 다른 동식물이나 사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지성과 도덕성’이 잘 발휘된 상태를 의미한다(Aristotle / Ross, trans.1980).

교육이 인간의 아레테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학교는 지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피이퍼(Pieper, 1952)에 따르면, 지적 탁월성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하나는 추론적 지성(*ratio*)이고, 다른 하나는 직관적 지성(*intellectus*)이다. 추론적 지성은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활동, 즉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탐색하고, 검사하고, 추상하고,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직관적 지성은 영혼의 은밀한 활동으로서 단순직관, 즉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이 진리가 저절로 훤히 들어오는 상태를 가리킨다. 추론적 지성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다면, 직관적 지성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지적 탁월성은 지성의 두 요소인 라티오와 인텔렉투스(가) 함께 작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탁월성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학교에서 추구하는 탁월성은 3중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 i) 학교에서 추구하는 탁월성은 도덕적 탁월성을 포함하는 인간의 탁월성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지적 탁월성’에 치중하고 있다.
- ii) 학교가 추구하는 지적 탁월성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라티오와 인텔렉투스 중에서 ‘라티오’에 제한되어 있다.
- iii)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라티오도 실지로는 라티오의 본질보다는 라티오의 ‘외양’, 즉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활동보다는 파편화된 교과지식을 외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라티오의 본래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교가 추구하는 탁월성은 인간의 탁월성을 포괄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온전한 지적 탁월성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은 불행하게도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 올리기라는 협소하고 왜곡된 지적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친구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썰 사이 없이 바위를 산 위로 굴러 올리지만 헛수고를 하는 시스포스의 신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시스포스처럼, 우리나라 학생도 지적 탁월성(의 외양)을 추구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가며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 추구는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피로사회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IV. 여가와 탁월성을 위한 교육

우리나라 학교에 만연해 있는 피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삶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 대안적인 삶과 교육의 하나로 ‘이론적 혹은 관조적 삶’(bios theoretikos)과 ‘쉽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론적 혹은 관조적 삶’과 ‘쉽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이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은 어떤 점에서 피로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탁월성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념적인 쉽 혹은 여가의 개념과 그러한 개념에 기반을 둔 쉽과 탁월성을 분리하는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희랍의 스킨레(schola)와 구약의 안식의 개념에 비추어 재해석된 여가 개념을 통해 여가와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 1. 통념적 여가의 개념과 교육

피로사회의 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쉽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이 ‘쉽 혹은 여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쉽 혹은 여가’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쉽 혹은 여가’의 통념적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쉽과 여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잠자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격무나 공부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쉬는 방식 중의 하나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거나 문을 걸어 잠근 채 어두운 방에서 온 종일 잠자는 것일 것이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중단하고 잠자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삶이거나 인간의 탁월성을 가져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게으름’(acedia)이 될 수 있다. 일과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방해한다.

둘째, 쉽과 여가는 일하고 남는 시간, 짬, 여유시간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하고 남는 여유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쉽이 있는 교육’을 위한 사회운동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쉽과 여가는 쉬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여가는 물리적 시간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나 노동이 아닌 낚시, 등산, 여행, 스포츠 등의 특정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흔히 ‘취미 활동’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체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성격을 띤 활동이다. 그러나 여가는 근본적으로 활동의 종류라기보다는 활동을 대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이다. 등산이나 스포츠와 같은 취미활동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나, 심지어 노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통념적 쉽과 여가 개념은 여가의 본질이나 실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여가의 겉모습에 해당되며, 여가의 외양은 시공간, 특별한 종류의 활동, 경제적 조건 등의 외적 조건을 강조한다. 물론 인간이 빠듯한 일정과 업무상황 속에서 여가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가의 외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가령 돈을 벌기 위한 일체의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쉽이나 여가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시간적 여유는 여가의 필요조건일지는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쉽과 여가의 통념은 잘못된 교육적 주장으로 이끌기 쉽다. 이러한 통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피로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공부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학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보주의 교육이나 자유학교 등을 고려할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이나 자유학교는 ‘위로부터의 교육, 바깥으로부터의 교육’으로 표현되는 전통교육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로부터의 교육’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교사나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하고, ‘바깥으로부터의 교육’은 교과외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Dewey, 1916). 진보주의 교육이나 자유학교는 전통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니 만큼, 학생의 자유와 자율성 중시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수업을 강조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지로 그러한 학교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여가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이나 자유학교가 교과외의 의미나 교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가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로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그 사회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교육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기껏해야 표면적 혹은 외적인 여가를 누리고 있거나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다. 여러 자유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학교는 적어도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2. 여가의 재해석: 스킨레와 안식

그러면 피로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쉽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은 불가능한 것인가? 여기서는 여가의 개념을 희랍의 스킨레(*scholē*)와 성경의 안식(*shabbat*)의 의미에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그러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여가의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피이퍼(J. Pieper)이다. 그는 『여가: 문화의 기초』(*Leisure: The Basis of Culture*)(1948/1952)에서 여가의 개념을 희랍과 중세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sup>3)</sup> 희랍어 ‘스콜레(*σχολή, scholē*)’와 라틴어 ‘스콜라(*schola*)’의 번역어인 여가(*leisure*)는 ‘자유롭다’, ‘허용되다’라는 뜻을 지닌 *licere*에서 온 말로서, “마음속에서 찰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식”을 의미한다. 여가의 핵심 요소는 관조(*theoria, contemplation*)이다. 관조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바

3) 이하의 여가에 대한 재해석은 Pieper(1952)와 그의 견해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김승호(2015)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라보는 것'으로서, 아무런 노력이나 긴장 없이 두 눈을 활짝 열고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관조야말로 인간의 궁극적 행복(*eudaimonia*)을 가능하게 한다. 관조가 최상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이성이 중심이 되는 활동, 다른 활동보다 오래 지속되는 활동, 가장 즐거운 활동이면서 쾌락을 안겨주는 활동, 그 자체 외에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 가장 자족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Aristotle, *The Nichomachean Ethics*: 1177a-1179a). 이러한 의미의 관조는 스콜레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스콜레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도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은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으로서, 스콜라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인 '지복'(*beatitudo*)이라고 보았다(Aquinas, S.T., I, 62, 1).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에서 보듯이, 고대 그리스와 중세에서 여가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다. 말하자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가를 누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여가 없이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고대 그리스와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꾸로 스콜레를 위하여 일을 기꺼이 감수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이 추구하는 일은 수단적 활동으로서, 언제나 노역을 요구하고, 긴장과 고통이 수반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일은 여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게으름(*acedia*)과 관련된다. 시간이 많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는 것이 악덕인 것처럼, 지나치게 일과 공부에 바빠 허덕이는 것도 여가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게으름과 마찬가지로 악덕이다. 중세에서는 게으름을 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모든 죄의 원천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에서 스콜레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삶이자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이 여가를 누리는 상태로 보았으며, 피이퍼는 여가야말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총체로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homo-capax universi*)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보았다(Pieper, 1952: 36). 만일 탁월성이 총체적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가를 누리는 것과 탁월성은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오히려 여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지금 여기(now and here)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급한 일상 삶의 세계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 스콜레를 보장해 주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며, 인간은 학교

에서 비로소 총체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막간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휴일도 없이 밤늦도록 시험 공부하는 것과 같은 학생들이 여가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이 총체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희랍의 스킨레 개념은 안식(*shabbat*)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안식은 여가 개념의 원형이다. 안식과 안식일은 구약 성경의 도처에 나타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창 2:1-3).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우리는 안식을 단순히 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해는 안식일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 종이나 손님,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4계명을 문자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소박하게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킨레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안식 혹은 안식일은 노동과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식 개념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계가 있다. 구원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것<sup>4)</sup>과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구원은 ‘재창조’(recreation),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세계와 구원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이다<sup>5)</sup>.

4)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5).

5) 구약의 안식 혹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며, 안식의 진정한 의

안식일은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하는 날이 아니며, 안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기는 해도 무위도식하거나 멍하게 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은 하나하나가 기묘막측하여 감탄을 자아 낼 수밖에 없으며, 구원은 기쁨과 감격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안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사역에 찬탄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안식은 근본적인 면에서 ‘축제(celebration)’이다. 그 축제의 토대이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worship)’이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총체적 세계를 즐기는 행위이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세계와 배풀어준 구원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이 지속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창조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희미해져 간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마음이 영똥한 곳에 가 있으면서 마지못해서나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자칫 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재창조한 것을 보고 기억하면서 기뻐 떨듯 감격하고 즐기는 삶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일 매순간 예배드리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안식일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안식은 여가의 원형으로서, 예배를 통한 진정한 즐거움과 향유가 있는 축제이다. 여가는 몇 가지 점에서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여가 시간에 하는 놀이나 오락을 일컫는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은 오늘날의 용법에는 종교적 요소가 사라졌지만, 문자적으로 ‘재창조’, 즉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점은 여가의 개념이 안식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피이퍼의 책 “여가”(Leisure)는 원제가 “휴식과 종교의식”(Mu e und Kult, 1948)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가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세계를 관조(contemplation)하는 것이

---

미는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리하여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 날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구속에 감사하고 즐기면서 예배하고 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온전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사 65:17-18)의 그림자이다. 이 글에서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신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인식하면서 예배하고 즐기는 일이다.

### 3. 여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피로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랍의 스킨레 개념에 비추어 쉼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쉼 혹은 여가’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잠자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총체적 세계를 수용하는 활동인 관조이다. 관조는 인간 활동에 속하기는 하나 개념상 신적 활동에 가깝다. 이 점에서 여가의 원형은 안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식은 세상의 번잡한 일상에서 격리되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를 통해 그가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쉼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은 세상의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 총체적 세계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향유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의문 내지 반론에 대해 대답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반론은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그 결과 이룬 경제적 성장과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반론을 하는 사람은 교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치열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사회적 지위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있다. 교육을 외재적 혹은 수단적 목적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가를 위한 교육은 결코 건전한 일이나 노동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재적 목적의 추구는 교육적 탁월성을 가져오기는커녕 교육의 왜곡 내지 타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먼저,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은 일이나 노동 그 자체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일하거나 노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한다(창 3:17).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고 하고 있으며, 청교도들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점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일과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시킴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해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사

라진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끝없는 욕망에 함몰되어 여가의 정신과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를 위한 교육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에 중독되어 인간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에는 스콜레가 들어 있다는 점과 인간은 스콜레를 누리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다음으로,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탁월성이 아니며,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가치는 더구나 아니다. 외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를 누린다는 것은 이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외재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탁월성은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됨의 탁월성과 무관하며, 따라서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학교가 비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학교를 시장(markets)으로 전락시켜 학교의 본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이다.

두 번째 반론은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공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학생들이 공부하기보다는 집에서 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될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현행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가 혹은 관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보았자 어차피 인텔렉투스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쉬면서 인텔렉투스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신자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안식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굳이 헤라클레스의 노동처럼 몸과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학교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이유에는 공통적으로 인텔렉투스와 라티오가 다른 경로로 주어지고, 인텔렉투스는 라티오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대답은 라티오와 인텔렉투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논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은 근본적인 면에서 지적 활동이고, 인간의 지적 활동은 라티오와 인텔렉투스의 두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 즉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총체적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라티오만으로 부족하며 인텔렉투스가 요청된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일반은 총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성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총체적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특별계시, 즉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토대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이 요청된다(잠, 1:7; 잠 9:10; 호 4:6).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라티오를 간과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티오와 인텔렉투스는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직각을 이루며 교차한다. 두 요소가 수직으로 교차한다는 것은 라티오를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텔렉투스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티오를 추구하는 노력 없이 인텔렉투스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텔렉투스는 인간이 열심히 라티오를 추구할 때 그 이면에 ‘신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김승호, 2015: 20-21). 말하자면, 라티오와 인텔렉투스 사이에는 연속성과 단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 교과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일에 안주하거나 얽매어 스킴레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공부를 통해 참된 스킴레와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반론은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이 희망이나 중세사회에서나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반론에는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처럼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적 측면과, 한국 사회처럼 학력과 시험에 의해 인생이 좌우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을 찾아다니는 사회 상황적 측면이다.

이 의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 놓기는 쉽지 않으며, 간접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물리세계의 결합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편적 지식이나 노동집약적 기술보다는 융·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와 비례하여 상실되어 가는 인간 존재의 본성을 되찾기 위한 각성과 인문학적 성찰이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능력과 요구 사항들은 역설적이게도 기존 교육에서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교과

서의 지식을 무조건 열심히 외운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히려 여가를 위한 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적 탁월성에 가깝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우리나라 학교가 하듯이, 교과와 단편적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수능중심의 입시교육으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어렵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으로 성적을 올리고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융·복합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공부는 총체적 세계를 인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을 결코 기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몸과 마음을 상해가면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여가 혹은 안식을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은 박학다식하지만 자신의 관점을 결여한 인재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배우는 내용이 다소 적더라도 그것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인재이다.

## V. 요약 및 결론

현대 사회는 ‘피로사회’라 불릴 만큼,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친 노동과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됨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로사회가 가속화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성과주의 때문이며, 그것이 학교에서는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왜곡된 형태인 성적 지상주의로 나타난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하루 종일 학교공부 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 사교육 기관을 전전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잠을 설치가며 공부하지만 인간의 탁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올바른 의미의 지적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쉽과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피로사회의 문제와 쉽과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여가를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지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듯이 보이나, 이중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학교교육이 직관적 지성(*intellectus*)을 간과하고 추론적 지성(*ratio*)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고, 추론적 지성마저도 본질보다는 외양만을 추구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의 학생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탁월성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립 불가능한 듯 보이는 ‘쉽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은 여가와 탁월성의 본래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양립가능하며, 또한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쉽 혹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회복한다고 할 때, ‘쉽 혹은 여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나 정신적인 게으름이라기보다는 희랍의 여가(*scholē*)나 성경의 안식(*shabba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가는 관조, 즉 총체적 세계가 한 눈에 훤히 드러나는 상태이다.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탁월성은 ‘지적 탁월성’(intellectual virtue)과 ‘도덕적 탁월성’(moral virtue)을 포함하며, 지적 탁월성에는 추론적 지성과 직관적 지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직관적 지성은 관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가를 위한 교육은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여가를 위한 교육’이 곧 ‘탁월성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여가의 원형은 안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안식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 안식을 취한데서 비롯된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총체적 세계를 바라보며 향유하는 축제이며, 그 축제의 토대는 천지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천지를 (재)창조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가 (재)창조한 총체적 세계를 관조하고 향유함으로써 새로워지고 충만해 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가 가진 종교와 상관없이 여가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여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한 동안 글 쓰는 것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콜레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까지 우리는 누구도 온전한 스콜레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과 학교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모든 활동에는 스콜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안식을 즐기려는 자세가 요청된다. 누구나 여가와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실지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여가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면서 은총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영택 (2008). 교육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 *신앙과 학문*, 13(3), 9-55.
- [Kang, Y. T. (2008). Christian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excellence and reform of college entrance exam. *Faith and Scholarship*, 13(3), 9-55.]
- 김승호 (2015). *여가란 무엇인가*. 파주: 교육과학사.
- [Kim, S. H. (2015). *What is Leisure?* Paju: Koyook Book.]
- 김정명 (2011). 여가와 영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서구영성전통의 바탕에서. *여가학연구*, 8(3), 75-91.
- [Kim, J. M. (2011). The nexus of leisure and spirituality: Based on western spiritual tradit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8(3), 75-91.]
- 유재봉 (2004). 종교적 자유교육론 연구: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6(2), 149-175.
- [Yoo, J. B. (2004). Augustine's and Aquinas's view of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26(2), 149-175]
- 주광순 (2017). 피로사회에서의 저항. *대동철학*, 81, 193-212.
- [Joo, K.S. (2017). Resistance in a fatigue society. *Daedong Chulhak*, 81, 193-21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KRIVET Issue Brief 제98호, 2016.04.30.
- [KRIVET (2016). KRIVET Issue Brief, 98, 2016.04.3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KRIVET Issue Brief 제116호, 2017.01.30.
- [KRIVET (2016). KRIVET Issue Brief, 116, 2017.01.30.]
- Aquinas, T., *Summa Theologica*. The English Dominicans(trans. 1947-1948). New York: Benziger.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D. Ross(trans. 1980). Oxford University Press.
- Berlin, I.(1969). *Four Essays i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Gardner, H.(2004). *F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Han, B. C.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T. H. Kim(trans) (2012). *A Fatigue Society*. Seoul: Mooji Publishing, Trans. Han, B. C. *Mudigkeitsgesellschaft*]
- Oakeshott, M. (1972). Education: The engagement and its frustration. R. F. Dearden,

P. H. Hirst, R. S. Peters(Ed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ieper, J.(1948), *Musse und Kult*. A. Dru(trans.) (1952),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Pantheon Book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2019.7.1.)

## 쉽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이 논문은 ‘피로사회’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쉽과 탁월성을 누리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나타내고 있는 피로사회 현상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한국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탁월성의 성격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마지막으로 피로사회와 탁월성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쉽 안식을 위한 교육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반론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학교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탁월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여가의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흔히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쉽과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 가, , , ,

